

# 질문하는 신앙

글 강영안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

예수를 따른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 유치해 보이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한번은 제자들끼리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다툰 일이 있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까지 끼어들 정도였으니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자들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것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으로 짐작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는지 알았다면 간담이 서늘해서라도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감히 말조차 꼬집어 낼 수 없었을 텐데 고난은 생각하지 않고 영광만을 기대했으니 꿈꿀 수도 없었을 것이다. 초막 셋을 짓고 변화산에 살자고 제안 했던 베드로의 경우도 웃음을 자아내기는 마찬가지다.



### 어린 아이들과 바리새인의 차이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두로와 시돈 땅을 지나가던 중 귀신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여인을 만났다. 그 여인은 예수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는 줄곧 침묵을 지켰다.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따라왔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하지 않고 예수께 그 여인을 내쫓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자신들이 내쫓기에는 여인의 간절함이 너무 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반면에 아이들이 예수께 몰려오자 제자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들을 막았다. 아마도 아이들은 쉽게 다루어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였다.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할 뿐 아니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하였다. 어떻게 천국이 어린 아이들의 것인가? 예수께서는 우리 모두가 성숙한 어른이 되기보다는 어린 아이가 되기를 원하신 것인가? 피터 팬이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인가?

잔치 집 비유,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의 비유, 포도원 비유 등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괴로움을 당한 일은 유대인들의 거부였다. 세리와 창녀들, 이방 사람인 가나안 여인은 예수를 영접하였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를 무시하였다. 그 가운데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선생들은 단순히 거부할 뿐 아니라 예수를 죽일 의논을 하고 있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인가? 불순종의 결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 갔다가 귀환한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라 제대로 살아 보겠다고 결심하고 모인 무리들이 바리새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믿는 열심(熱心)이 특심(特甚)인 사람들이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오게 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볼 수 없었다. 율법사나 서기관들도 이 점에서 마찬가지였다. 왜 그럴까? 어린 아이들과 바리새인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들의 질문은 진정 알고 싶은 마음으로 던진 질문이 아니었다. 진심으로 질문을 가지고 왔다면 예수께서는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을 답변을 하였을 것이다. 그들은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답변’이 아니라 ‘덧을 깐 질문’에 ‘현명한 답변’을 얻는 데 그치고 말았다.”**

바리새인들, 율법사와 서기관들에게는 답이 있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들에게는 분명한 답이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해야 한다는 정답이 있었다. 예수께 찾아온 아이들에게는 답이 없었다. 그들이 가진 것이 있다면 호기심과 질문이었다.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아직까지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권위 있게 한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분을 직접 보고 싶은 마음으로 아이들은 찾아 왔을 것이다.

“아저씨, 누구세요?”, “아저씨, 어디서 오셨어요?”, “아저씨가 가르치는 말은 정말이예요?” 아이들은 아마도 예수께 이렇게 물었을 것이다. 아이들은 제자들이 보기에는 귀찮은 존재였지만 예수께서 보기에는 이들밖에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 없었다. 혹자는 아마도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이다. “바리새인들도 질문을 했는데요?”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도 질문을 하였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이웃이 누구냐? 중요한 질문을 했고 중요한 답변을 그들은 이끌어 내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온 답변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질문은 진정 알고 싶은 마음으로 던진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정직하게, 진심으로 질문을 가지고 왔다면 예수께서는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을 답변을 하였을 것이다.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답변’이 아니라 ‘덧을 깐 질문’에 ‘현명한 답변’을 얻는 데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그 답변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러므로 답변을 질문 삼아 다시 예수를 보았다면 그들에게 깨달음과 변화가 있었을 텐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삭개오라는 사람을 보라. 삭개오는 예수에 대해서, 그가 행한 여러 일들에 대해서 듣고 있었다. 그것만으로 그의 호기심은 충족되지 않았다.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다. 어느 날 삭개오는 예수를 직접 보겠다는 마음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많은 무리들이 에워싼 탓으로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를 볼 수 없었다. 삭개오는 나무를 타고 올라갔다.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를 보기를 원했다. 생각해 보라. 삭개오는 그냥 '아무개'가 아니었다. 그는 세관의 높은 관리였다.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아이들이 하는 짓을 하고 만 것이다. 무엇이 사회적 위치나 그의 체면을 이토록 무시하게 만들었는가? 예수가 누구인지 직접 알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예수가 누구인가? 그가 누구이기에 보지도 못한 일을 행하고 듣지도 못한 말을 하는가? 이 물음이 체면 불구하고 삭개오를 나무 위로 올라가게 하였다. 부끄러움을 누를 정도의 질문을 가진 이는 복이 있을진제!

### 질문은 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런데 왜 우리는 신자가 되면 더 이상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가? 왜 모든 답이 이미 주어졌다고 믿는가? 왜 교회에 들어서면서 머리는 떼어 놓고 가슴만 가지고 들어오는가? 그렇게 하고는 교회 밖 세상에 나가서는 가슴은 외면하고 애써 머리만 돌리려고 그렇게도 애쓰는가?

묻는다는 것, 질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생각해 보

자. 현대 철학자 가운데 하이데거는 물음을 강조한다. 인간 실존을 논할 때 그는 인간을 무엇보다 물음을 던지는 존재로 본다. 물음을 강조한다고 해서 하이데거 철학은 답을 곧장 제공하는 것을 시도하지 않는다. 하이데거는 전통 철학의 문제는 질문을 하고는 곧장 답을 제공하려는 데 있다고 보고, 제대로 묻는 것은 물음 가운데서도 가장 근본적인 물음인 '존재'에 관해서 끊임없이 물어 보되, 손쉬운 답을 찾기 보다는 이 물음 속에 머물면서 물음의 길을 계속 따라 걸어가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런 의미에서 하이데거는 "물음을 묻는 것은 사유의 경건"(Fragen ist die Frömmigkeit des Denkens)이라는 말을 남겼다. 그러니 "신학자들은 묻지도 않는 질문에 답을 하고 철학자는 답을 하지 않고 묻기만 한다"는 말이 생길 법도 하다. 어떤 경우이든 철학자들은 답을 주기 보다는 묻는 일에 더 많은 힘을 쏟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가능한 답으로 주어진 것을 보면 또 다시 물음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답이라도 잠정적일뿐 결정적으로 질문하는 입을 막게 할 답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철학자의 전형인 소크라테스를 보라. 자기 아버지를 종교 법정에 고발하고 나오면서 '신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에우티프론에게 소크라테스는 '신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나고 따지기 시작한다. 에우티프론은 종교와 관련된 일을 맡은 사제이기 때문에 '토 호



시온'(to hosion), '신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 곧 '종교적 의무' (흔히 이 말을 '경건'이란 번역한다)의 의미를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던졌다. "지금 나처럼 하는 것이 종교적 의무를 한 것이고 나처럼 하지 않는 것이 종교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지 말고 보편적인 특성을 통해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달라는 요구에 "신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신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종교적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고쳐 말하자 소크라테스는 신들 사이에도 싸움이 있고 차이가 있는데 어떤 신들의 사랑을 받더라도 다른 신들의 사랑은 받지 못할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이 종교적 의무를 다한다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질문을 던진다. 에우티프론은 결국 바쁘다는 핑계로 도망가고 종교적 의무에 관한 토의는 정확한 정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중단되고 만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 군인을 만나면 용기에 관해서 묻고, 정치가를 만나면 정의에 관해서 묻고 덕을 가르치는 교사로 자처했던 수사학 선생들을 만나면 덕에 관해서 물었다. 이것이 그를 죽음으로 몰게 된 중요한 이유가 되었지만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질문하는 일, 곧 철학하는 일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다. 질문은 그에게 철학하는 방법이고 철학 자체였다.

###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아는 무지(無知)의 지(知)

소크라테스는 왜 질문을 던졌는가? 소크라테스는 하늘의 달과 별에 관한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한 때 그도 이 문제들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지만 그가 관심을 둔 질문은 사람에 관한 것이었다. 사람의 삶에 관해서 소크라테스는 관심을 기울였다. 그것도 먹고 자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가장 '탁월하게 수행할 기능'에 관심을 두었다. 사람으로 가장 탁월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헬라스 사람들은 '아레테'(arete)라고 했는데 이것을 라틴어를 쓰는 사람들이 '비르투스'(virtus)라고 옮겼고 이것을 뒤에 영어로는 '버추'(virtue)라고 옮겼고 다시 이것을 일본이나 중국, 한국에서는 '얻음'이란 뜻을 가진 덕(德)이란 기존의 단어를 써서 옮겼다. 소크라테스는 칼의 덕, 칼의 아레테가 날카로움에 있고, 말의 아레테가 날쌔에 있듯이 사람에게도 사람으로 가장 탁월하게 수행할 수 있는 덕, 곧 아레테가 있다고 보았다.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이런 것들이 그 목록에 들 수 있는 것들인데 소크라테스는 이런 것들이 먼저 무엇인지 정확

하게 알기를 원했다. 만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행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제대로 안다는 것은 정확한 '정의'(definition)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오늘 의 용어로 말하자면 필요충분조건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만일 '신들에 대한 종교적 의무'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지 못한다면 에우티프론이 아버지를 살인죄로 법원에 고발한 것이 '신들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닌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알고자 했고 알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지식을 흔히 '무지(無知)의 지(知)'라고 부른다. 용기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경건이 무엇인지 소크라테스 자신은 적어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안다'고 생각하였다.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질문을 계속하기에 아테네의 시인들, 정치가들, 기술자들에게 소크라테스는 귀찮은 존재가 되고 말았다. 더구나 귀족 출신 청소년들이 그를 모방하여 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자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는 죄명을 목에 걸게 되었다. 더구나 '아테네 사람들이 모두 믿는 신들을 믿지 않는다', '다른 신을 도입한다'는 죄명도 함께 얻었다. 이것이 그를 죽음으로 몰았다. 소크라테스는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였고 이 세상에서 매우 보기 드물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마지막을 맞이 했다. 그런데 세인의 눈으로 볼 때 가련하게 죽어간 소크라테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가?

일관성의 관점이나 인격적 정직성의 관점에서 볼 때 소크라테스만큼 탁월한 사람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아테네 시민 법정에서 자신을 변론했던 내용과 크리톤과 했던 대화를 읽어 본 사람이면 이 점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는 모든 것을 철저히 이성적 법정에 기소하고자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목숨마저 잃었다. 그것에 대해서 한 치의 후회도 없었다. 그는 그가 가르치고 주장한대로 죽었다. 왜냐하면 대중들의 의견





사람의 욕망은 '모방'에 근거하고 있다. 나는 타인들이 욕망하는 것을 욕망한다. 그러므로 질문도 순전히 개인 중심으로만 이해할 수는 없다. 내가 던지는 질문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사람들이 같이 던지는 질문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나 감정, 가족의 상황이나 친구들의 부탁이 아니라 오직 이성에 근거한 합법성에 따라 행동해야 사람으로 제대로 사는 것이라는 확신을 소크라테스는 끝까지 고수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이성의 범정에 불리 들여야 한다고 생각한 점에서 칸트는 소크라테스를 따랐다. 칸트는 '이성의 범정'을 일컬어 '순수이성비판'이라고 이름 붙였다. 형이상학 문제에 한정해서 다루기는 했지만 칸트는 우리가 안다고 주장하는 것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사실은 이성의 월권에 따른 결과임을 드러낸다. 우리에게 감각적인 자료가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감정과 상상력과 지성을 이용해서 지식을 만들어 낼 수 있지만 우리의 감각으로 포착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식을 만들어 낼 수 없다고 칸트는 생각했다. 그래서 칸트는 우리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영원의 불멸이나 자유의 문제나 신의 존재는 이론이성이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 그렇게 한 뒤, 이 문제들은 실천적 삶의 영역으로 이관시켰다. 칸트는 도덕적 행위자가 되는 영혼의 존재와 도덕 세계의 공정한 심판자인 신의 존재, 그리고 도덕 행위자의 행위의 근거가 되는 자유를 도덕적 행위가 가능하기 위한 근거로 '이론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이것이 유명한 '실천 이성의 요청'이라는 말의 내용이다.

### 소크라테스의 문제

소크라테스도 사실 우리 영혼의 불멸과 인간의 자유와 신의 존재에 관한 근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는 대부분 플라톤의 기록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역사적 소크라테스'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그의 가르침과 행적을 볼 때 이 세 가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근거가 없다. 더 좋은 나라에 가는 이의 기쁨을 드러낸 것이나 자신

의 철학자로서의 활동이 잠자는 아테네인들에게 쇠파리가 되어 그들을 일깨우도록 신이 주신 사명으로 이해한 것, 그리고 모든 생각과 행동을 어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자발적인 판단과 선택에 따라 한 것들을 볼 때, 소크라테스를 회의론자나 불가지론자로 볼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소크라테스는 정의가 무엇이라든지, 용기가 무엇이라든지, 지혜가 무엇이라든지 어디서든 스스로 적극적으로 정의를 한번도 내린 적이 없는 것을 보면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하고 자신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 덕에 대해서 잠정적이고 보류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결국 그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 덕에 따른 실천적 행위에 대해서 그는 자신 있게 말할 근거가 없었다. 금욕주의자도 쾌락주의자도 상대주의자도 절대주의자도 아닌 방식으로 소크라테스는 계속 묻고 계속 숙고했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 점에서 소크라테스는 하이데거가 말하는 '사유의 경건'을 철저히 수행한 이었던가?

소크라테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소크라테스의 문제는 공동체와 공동체의 전통을 통해 수용되어 오는 지식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었다. 용기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지혜가 무엇인지 아테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전통을 통해 비록 모호하게나마 알고 있었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 지닌 지식(common knowledge)를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한다. 소크라테스는 도덕적 개념들과 판단도 마치 삼각형에 관한 기하학적 개념과 판단처럼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할 때까지 그는 끝까지 밀고 나갔다. 그러나 그러한 정의를 얻어낼 수 없었다. 오늘날 흔히 '가치 개념'이라 부르는 것들은 삶의 세계와 공동체적 전통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기하학적인 방식으로는 정의를 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소크라테스는 모르고 있었다. 만일 정확하게 알아야 행위할 수 있다면, 그리고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이라면, 소크라테스는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행위할 수



8\_worldview





없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도덕적 행위는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죽어갔다고 말해야 한다.

### 질문은 우리가 몸 담고 있는 삶의 세계에서 출발한다

소크라테스의 문제는, 다시 반복하자면, 질문조차도 사실은 삶의 세계에 뿌리 두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몰랐거나 무시한 것이었다. 삶의 세계는 많은 전제들, 많은 선지식(先知識)들, 많은 의견들을 담고 있다. 이것들 가운데 많은 것들은 틀린 것들 일수도 있고, 개연성은 높지만 따져 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지식도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지식 체계를 대부분 따르고 이 체계에 따라 사물을 지각하고 행동을 판단한다. 소크라테스는 여기에 망치질을 하였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참된 것, 도무지 의심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얻고자 하였다. 이 점에서 데카르트, 칸트, 그리고 초, 중기의 후설뿐만 아니라 오늘의 철학자들이 대부분 소크라테스의 후예들이다. 소크라테스의 제자들 가운데는 쾌락주의 전통을 만든 사람도 있고 회의주의자도 있고, 금욕주의자도 있고, 이상주의자도 있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의 후예라 해도 모두 동일하지는 않지만 오직 이성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한 점에서 소크라테스를 닮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 해도 ‘진정으로 참된 것’, ‘도무지 의심할 수 없는 것’ 이 자체를 부인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가슴을 열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상상력, 전통, 일상 경험에서 오는 깨달음, 성경을 읽고 배울 때 얻는 지식과 통찰, 이런 모든 것을 제거하고 오직 이성만으로 ‘진정으로 참된 것’, ‘도무지 의심할 수 없는 것’을 찾으려고 할 때 문제가 된다.

이제 다시 질문한다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자. 왜 우리는 질문을 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질문하는 것인가? 우리가 질문할 때 어떻게 하는가? 예를 들어보자. “지금 몇 시입니까?”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네, 지금 6시 반입니다.”라고 답한다. 그 답을 들은 사람이 “아이구, 큰 일 났네요. 6시 반에 명동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약속했는데요.”라며 급하게 나갔다. 이 경우 질문이 무엇이며 어떻게 질문을 하였는가? 여기에는 우선 많은 것들이 전제되어 있다. 질문이 가능하려면 우선 두 사람이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 만일 말(몸짓과 글 등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 수단 전체를 포함해서)이 없다면, 그리고 말이 서



로 통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면 질문이 가능하지 않다. 여기서 동물과 사람 사이는 배제된다. 둘째로, 질문은 무엇을 묻는지 주제가 이해되어야 한다. 주제는 말이나 글, 몸짓 등 표현 수단을 통해서 지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시간을 묻는지, 길을 묻는지, 아니면 밥을 먹었냐고 묻는지 무엇을 묻는지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질문이 질문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무엇을 묻는지 모른다면 질문을 받는 사람이 상대방의 말을 질문으로 수용할 수도 없고 대답을 할 수 없다. 질문은 “(언어를 포함한) 표현 수단을 매개로 질문 주제를 두고 질문하는 사람과 질문을 받는 사람이 일어나는 의사소통 행위”라고 일단 ‘정의’를 내려 볼 수 있다. 그런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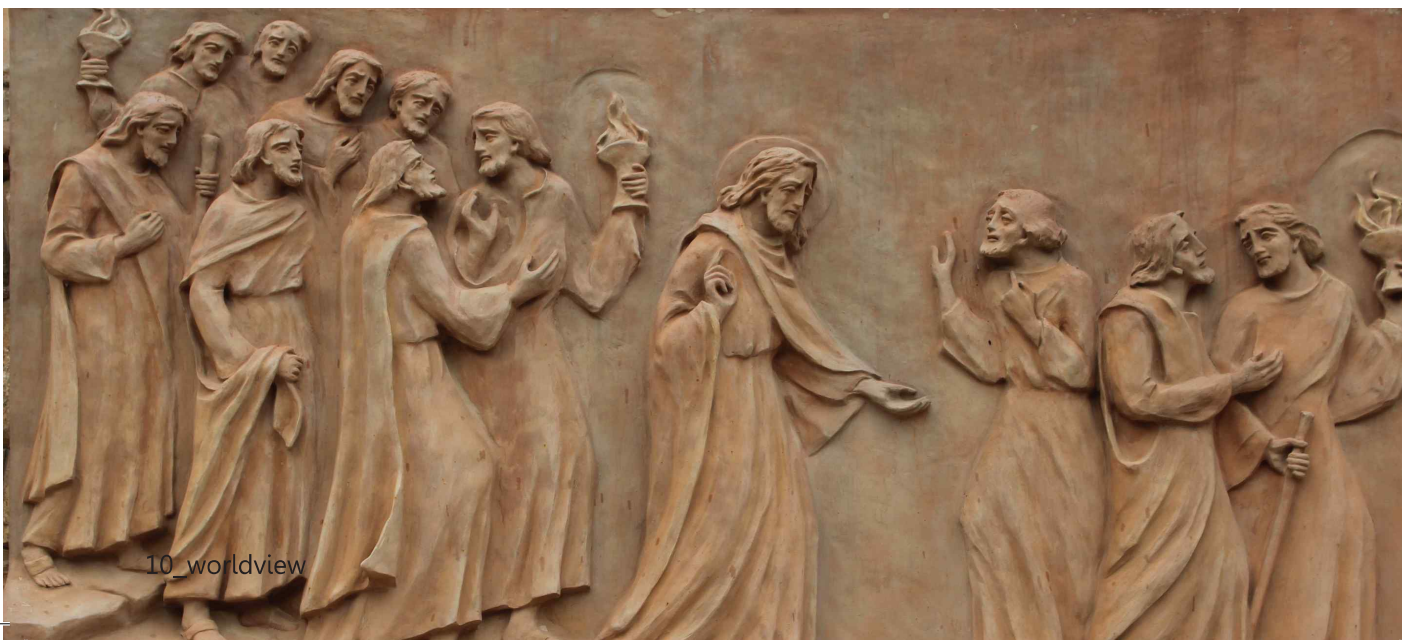
질문하는 사람과 질문 받는 사람이 반드시 나와 타인으로 구별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스스로 묻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 몇 시인가?”라고 자문하면서 자신의 시계를 들여다 볼 수 있다. 그리고 “아, 지금 6시 반이네. 빨리 가야겠어”라고 스스로 자신에게 반응을 보일 수 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자. 이러한 의사 소통이 내 자신 안에서 일어나든 아니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든 의사소통이 되려면 표현 수단으로 쓰인 언어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많은 것들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시간이란 것이 있다는 것, 그리고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도구가 나에게 지금 시각이 몇 시, 몇 분인지 알려 줄 수 있다는 것 등이 여기에 전제가 되어있다.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는 곳에서는 현재 우리가 묻는 것처럼 “지금 몇 시입니까?”라고 물을 수 없다. 날이 어두워졌다거나 밤이 깊었다거나 날이 밝아온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와 달에 따라 낮밤의 밝기를 가지고 시간의 흐름을 말할 수밖에 없다. 이로부터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몸담고 있는 삶의 세계 안에서 질문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우주의 진행 과정, 낮밤의 변화,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생애 주기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의식이 없이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길 수 없다. 문화에 따라, 지역에 따라 시간 체험이 다르고 따라서 시간 개념도 다르게 이해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수용할 수 있다. “시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철학적 질문은 이 모든 것이 전제된 다음에야 출현하였다. 질문은 공동의 삶의 세계, 공동의 삶의 형식을 일단 전제로 한다. 이스라엘의 메시아 대망 없이 세례자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라는 질문

을 할 수가 없었듯이 질문은 그것이 출현할 수 배경과 출처와 연유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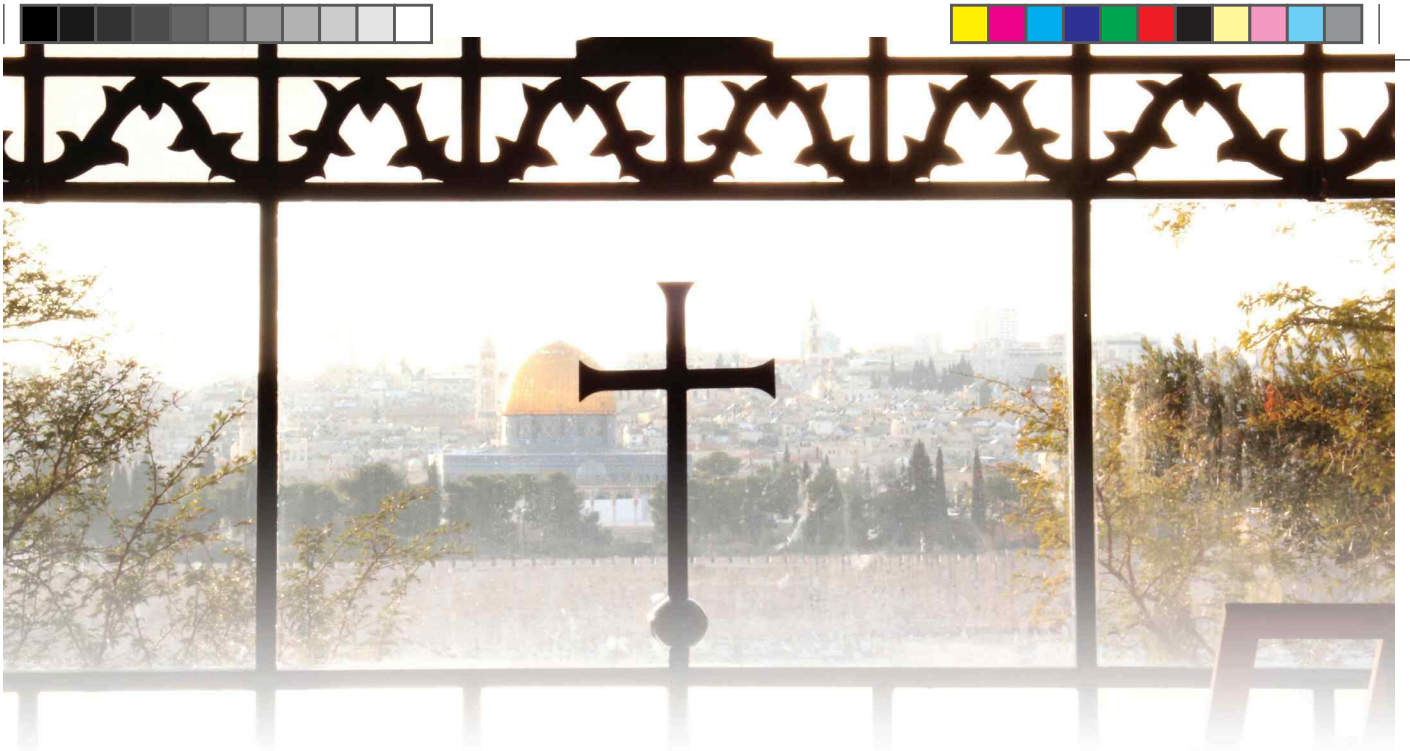
### 질문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만일 질문한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오직 이성에만 근거해서 질문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질문하는 사람은 오직 이성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다. 감정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하고 싶어 하거나 하기 싫어하며 상상력을 따라 수많은 것을 머리 속에 그려보고 추론하고 기대하고 희망하고 때로는 절망한다. 이것들이 혼자 생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온 것들이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굳이 르네 지라르를 인용할 필요 없이 사람의 욕망은 ‘모방’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타인들이 욕망하는 것을 욕망한다. 그러므로 질문도 순전히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만 이해할 수 없다. 내가 던지는 질문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사람들이 같이 던지는 질문일 가능성이 높다. 만일 이것이 옳다면 이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숙고해갈 때 반드시 이성만을 유일한 원천과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 교회 전통이 ‘계시’라고 부른 것들을 물어가고 생각하는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좀 더 명백하게 그리스도인다운 생각, 그리스도인다운 판단을 하자면 적극적으로 ‘계시’에 의존하여 질문을 하고 생각을 펼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일컬어 박윤선 목사님은 ‘계시 의존 사색’이라 불렀다. 계시 가운데는 예언도 있고, 꿈도 있고, 이른바 ‘일반계시’도 있고, 신비적 경험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



10\_worldview





인들이 공통으로 믿고 의존할 수 있는 '계시'는 역시 신구약 성경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펼쳐 들고 묵고, 생각하고, 따져 보고, 다시 물어보는 활동을 반복하면서 그것으로부터 얻은 지식과 믿음을 바탕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생각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이다.

###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져야 할 세 가지 질문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물음에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질문이 무엇인가? 나는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물음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요 따르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둘째,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며 특별히 나에게, 우리에게 누구인가?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나는, 그리고 우리는 누구이며, 나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무엇인가? 이렇게 적어도 세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고 던져야 한다. 그런데 방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질문들은 허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전통과 전통을 가능케 한 사건, 그것들에 대한 증언을 담고 있는 성경, 오랜 세월과 시간동안 동일한 물음을 묻고 생각해 온 역사들을 모두 포괄한다. 그러므로 질문을 던진다고 하지만 사실은 홀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앞서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따라다시 물음을 던지게 된다.

그럼에도 물음을 던지는 사람은 물음을 던지게 하는 삶의 상

황을 떠나 있지 않다는 것 또한 앞의 논의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근본적인 사실이다. 우리는 추상적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우리가 속한 세계에 몸 담고 있는 구체적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물음은 앞에서 말한 여러 근거와 출처를 자원으로 삼아서 지금, 여기 우리가 처한 삶의 상황으로부터 솟아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일한 질문을 던진다고 해도 항상 새롭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처한 삶의 상황, 삶의 물음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저 질문을 하게 되는 현재 우리의 삶의 정황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을 하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말씀의 부름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상황인가? 나는 우리가 신앙 따로, 삶 따로, 생각 따로, 행동 따로, 서로 따로 떨어져 사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저 질문들을 던지는 까닭은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그리고 신앙 공동체에 속한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의 용근 모습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을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던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세계관의 문제가, 세계관의 질문이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

